



“이젠 그램미서 단독무대…상도 받고싶어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글로벌 그룹 방탄소년단은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다고 했다. 신곡 '다이너마이트'(Dynamite)로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핫 100' 1위를 차지하며 세계 대중음악사를 새롭게 쓴 이들의 미래 여정 첫 목표 지점은 '그래미 어워드' 무대이다. 이들은 7년 전 “고향에서 올라와 빈손으로 좁은 지하 연습실에서 웅기증기 모여 열심히 펼쳐온 노력을 인정받고 보상받는 또 하나의 무대로 향하겠다”고 다짐했다. 세계 정상에 오른 뒤 2일 온라인 글로벌 미디어데이를 열고 전 세계 취재진에게 내놓은 새로운 출시표이기도 하다.

●이제 세계의 눈은 '그래미'로

“그래미 어워드는 사실 음악인 누구나 꿈꾸는 시상식이죠. 당연히 노미네이션 됐으면 좋겠고, 나아가 상도 받을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방탄소년단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1월 열리는 '그래미 어워드'는 '빌보드 뮤직 어워드',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와 함께 미국의 4대 음악 시상식으로 꼽힌다. 세계적인 권위를 지녔지만 보수적 색채가 강해 미국 주류 팝음악 위주로만 후보를 선정하고 시상한다는 비판을

BTS, 글로벌 미디어데이서 마지막 꿈 밝혀
“빌보드 핫100 1위 모든 것 보상받은 느낌”

받아왔다. 또 비영어권 아티스트에게도 문턱이 높기로 유명하다.

세계적 팬덤에 힘입어 2017년 '빌보드 뮤직 어워드'의 '톱 소셜 아티스트'로 꼽힌 이후 다른 시상식에서 모두 수상한 방탄소년단은 그램미의 장벽은 아직 뚫지 못했다. 작년 4월 미니앨범 '맵 오브 더 솔:페르소나'(MAP OF THE SOUL: PERSONA) 등 빌보드 앨범 메인 차트인 '빌보드 200' 4회 연속 1위의 성과로 그램미의 후보 지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 2면으로 이어집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스포츠동아

2020년 9월 3일 목요일
www.sportsdonga.com

1위
ABC 공인 유료 발행부수
3년 연속 1위

김광현 신시내티전 5이닝 4K 무실점 2승 의미

ERA 0.44...ML 역사상 2위

〈선발로 나선 4경기 ERA〉

〈좌완선발 데뷔4경기 최저 ERA〉

- 1 최근 17연속이닝 비자책 행진
- 2 ERA 1.08서 0.83 꿈의 0점대
- 3 속구 변화구 등 제구도 퍼펙트
- 4 아키야마와 한일 대결서도 완승
- 5 메이저리그 신인왕도 노려볼만



100마일(약 161km)의 속구도, 타자의 배트를 끊어낼 만큼 각도 큰 변화구도 없다. 하지만 경험과 관록으로 뚝뚝 뚫어준다. '메이드 인 KBO' 김광현(33·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메이저리그(ML)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선명히 아로새겼다.

김광현은 2일(한국시간)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열린 신시내티 레즈와 원정경기에 선발등판해 5이닝 3안타 2볼넷 4삼진 무실점으로 호투했다. 타선이 1회부터 6점을 뽑는 등 폭발한 덕분에 팀도 16-2 대승을 거뒀다. 김광현은 시즌 2승(무패1세이브)째를 챙겼다. 8월 23일 신시내티전(홈경기) 1회부터 17연속이닝 비자책점 행진이다. 등판 경기에서 팀이 4승1패를 기록하는 등 승리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기 내내 안정감이 가득했다. 최고 92마일(약 148k

m)의 속구를 중심으로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을 앞세워 신시내티 타자들을 압도했다. 스트라이크존 구석구석을 찌르는 제구가 돋보였다. 가장 큰 위기는 3회말 1사 1·2루였는데, 닉 카스테야노스를 병살타로 속아내며 한숨을 돌렸다. 카스테야노스는 1회 무사 1루에 이어 2차례 병살타로 김광현에게 공포 묶였다. 두 타석 모두 속구를 노렸지만 움직임이 심해 제대로 된 타구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후 별다른 위기 없이 등판을 마쳤다. 일본인 외야수 아키야마 쇼고와 맞대결에서도 2타석 모두 외야 뜬공으로 판정승을 거뒀다.

이날 호투로 김광현의 평균자책점(ERA)은 중전 1.08에서 0.83까지 떨어졌다. 데뷔전인 피츠버그전 구원등판(1이닝 2실점 1자책점·세이브)을 빼고 선발로 나선 4경기만 따지면 ERA는 0.44까지 떨어진다. 미국 통계분석사이트 스탯츠에 따르면, ERA가 ML 공식 기록으로 인정받은 1913년 이후 좌완 선발의 데뷔 4경기 최저 2위다. 1위는 1981년 페르난도 발렌수엘라(LA 다저스)의 0.25. 100년 넘는 역사에서 2위 기록을 남겼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이제는 신인왕을 노려볼 만하다. 어느새 반환점을 돌았기 때문에 잔여경기에서도 지금의 강렬함을 유지한다면 마냥 멀어 보이는 목표는 아니다.

▶ 관련기사 2면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 세인트루이스 김광현이 2일(한국시간)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벌어진 신시내티와 원정경기에 선발등판해 힘차게 볼을 던지고 있다. 5이닝 3안타 2볼넷 4삼진 무실점의 호투로 시즌 2승째를 따냈다. 신시내티(미 오하이오주) | AP뉴시스

CJ CHEILJEDANG

나의 건강 리턴포인트 리턴업

중장년의 침침하고 흐린 눈엔

아이시안 멀티케어 골드

눈의 중심부인 황반의 구성 성분 '루테인'과 '지아잔틴'

수정체를 통해 들어온 빛이 상으로 맺히는 부분인 황반은 시상세포가 밀집되어 있는 우리 눈의 중심 부분입니다. 황반은 루테인과 지아잔틴색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노화로 인해 황반을 구성하는 색소밀도가 감소하면 눈이 침침해지고 흐려지게 됩니다. 중장년의 눈 건강, '루테인·지아잔틴 복합추출물'로 챙기십시오!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눈 건강기능식품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눈 건강기능식품인 아이시안 멀티케어 골드는 식약처 1일 권장섭취량(20mg)을 충족하는 루테인·지아잔틴복합추출물을 함유하고 있어 노화로 인해 감소할 수 있는 황반색소 밀도를 유지시켜 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하루 한 캡슐로 눈 건강과 기초 영양까지 케어

아이시안 멀티케어 골드는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원료 뿐 아니라 기초 영양 케어를 위해 1일 권장량을 100% 충족시키는 비타민 4종(A, C, E, 베타카로틴)과 미네랄 2종(구리, 아연)이 들어있습니다.

6개월분 구매 시

정상가대비 41% 할인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무료상담 및 주문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80-330-9988



리턴업 전속모델
성유리

